

15배 축소 LED소자로 꿈의 화질... AI시대 '스크린혁명'



'삼성 퍼스트 룩 2019'

'마이크로LED' 적용한 75형 첫 선
한중희 "마이크로 사업 원년될 것"



삼성전자는 6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아리아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19' 행사를 열고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이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75형 스크린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CES 2019' 개막을 이틀 앞둔 6일(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아리아 호텔에서 '삼성 퍼스트 룩 2019' 행사를 열고 TV 신제품을 공개했다.

'삼성 퍼스트 룩'은 삼성전자가 매년 자사의 TV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선보이고 미래 디스플레이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7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삼성전자는 이 날 전 세계 500여명의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75형 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고, AI 시대의 스크린 혁신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한중희 사장은 "브라운관 TV 시대부터 LCD·LED·QLED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항상 새롭고 혁신적인 TV를 선보여 왔고, 차세대를 이끌 스크린이 어떤 형태가 돼

야 할지 고민해왔다"며 '마이크로 LED'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 사장은 마이크로 LED를 화면 크기, 화면비, 해상도, 베젤 등 기존 디스플레이의 '4가지 제약'을 없앤 미래형 디스플레이라고 정의하고, "이 기술이 AI 시대를 선도할 스크린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세계 최소형인 75형 마이크로 LED 스크린을 최초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마이크로 LED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마이크로 LED는 화면 크기가 작아질수록 소자 크기와 간격도 작아진다. 이 때문에 75형 신제품은 기존 146형 '더월' 대비 4배 이상의 집적도를 구현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75형 마이크로 LED는 기존 대비 약 15배 작아진 초소형 LED 소자가 촘촘하게 배열돼 더욱 세밀한 화질을 구현한다.

또한 이 마이크로 LED 기술에 '모듈러' 방식이 적용돼 사용 목적과 공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CES 2019에서 최고혁신상을 수

상도 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상업용으로 주로 판매되던 더월의 디자인과 사용성을 대폭 개선한 19년형 더월로 본격적인 럭셔리 홈 시네마 시장 공략에 나선다.

2019년형 더월은 마이크로 LED가 제공하는 화질로 대형 화면에서도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하며 AI 기반 업스케일링을 통한 화질 최적화, 최대 2000니트 수준의 밝기 등을 통해 영상을 보다 깊이 감·생동감 있게 표현해 준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피니티 디자인'은 베젤이 없고 슬립한 두께를 갖춰 스크린과 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에는 작년 QLED TV에서 첫선을 보인 '매직스크린' 기능을 2019년형 더월에 적합한 UX(사용자 경험)로 개선한 '월 모드'도 새롭게 적용됐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다양한 벽 소재로 꾸며진 테마를 설정해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며, 제품이 꺼져 있을 때는 시간·날씨·조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여 주는 등 라이프스타일 스크린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제품은 16:9 비율의 146형(4K)부터 219형(6K), 21:9의 와이드 스크린 등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즈, 형태로 설치가가

능하다. 삼성전자는 퍼스트 룩 행사장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참석자들이 마이크로 LED와 QLED 8K 중심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몄다.

마이크로 LED 존에서는 모듈러 방식을 적용해 집안에 설치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QLED 8K 존에서는 AI 화질 엔진 '퀀텀 프로세서 8K', 차세대 화질 규격으로 부상하고 있는 'HDR 10+', 뉴 빅스비가 적용된 스마트 기능 등을 통합적으로 전시했다.

2019년형 삼성 스마트 TV는 '뉴 빅스비' 탑재를 통해 복잡한 명령어를 더 잘 이해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며, 구글·아마존의 AI 스피커와도 연동돼 더 편리해졌다.

한 사장은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LED 기술을 진화시켜 75형에서 219형까지 다양한 마이크로 LED 스크린을 선보이게 됐다"며 "올해는 마이크로 LED 사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삼성만의 차별화된 화질·반도체·AI 기술로 스크린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AI 시대에 스크린을 통해 더 많은 경험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기자
yun12514@metroseoul.co.kr



네이버 CES 2019 부스 조감도. /네이버

AR 길찾기·5G 로봇제어 기술로 출사표 (증강현실)



자율주행 로봇 '어라운드G' 등 13종 신기술·시제품 선보여

네이버가 'CES 2019'에서 인공지능, 로봇틱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최첨단 미래 기술들을 선보인다.

네이버가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창사 20주년을 맞아 세계 무대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 도약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네이버는 이번 CES 2019를 통해 네이버랩스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 기기들을 위한 위치 및 이동 통합 솔루션 'xDM 플랫폼' ▲3차원 실내 정밀 지도제작 로봇 'M1' ▲고가의 레이저 스캐너 없이도 원활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가이드 로봇 '어라운드G' ▲로봇틱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실내 지도 자동 업데이트 솔루션' ▲와이어 구조의 혁신적인 동력 전달 메커니즘으로 정밀 제어가 가능한 로봇팔 '엠비텍스'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응용한 전동 카트 '에어 카트' ▲자율주행차 연구에 필수적인 H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 기자

화면 260장 연결한 '올레드 폭포'에 감탄



곡면 장점 활용해 대자연 담아 AI·로봇 등 미래 사업 소개도

LG전자가 현지시간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19'에 참가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LG전자는 올해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 Better Life)'을 슬로건으로 2044제곱미터(㎡) 규모 전시관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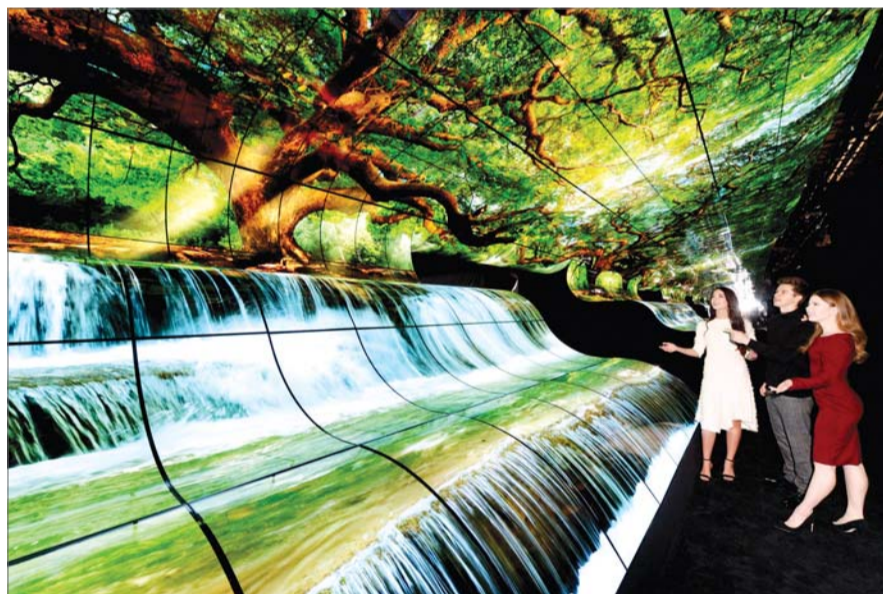
전시관 입구에는 '올레드(OLED) 플렉서블 사이너지' 260장을 이어 붙여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끈다. 완벽한 블랙, 곡면 디자인 등 올레드만의 장점을 활용해 대자연의 웅장함을 담았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사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LG 씽큐 AI존'에서 선보이는 새로워진 LG 씽큐는 단순히 명령어에 따라 동작하는 방식을 넘어 고객 맞춤형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로봇 사업에도 가속도를 낸다. LG전자는 허리근력 지원용 'LG 클로이 수트봇' 신제품을 소개했다. 지난해 8월 선보인 하체근력 지원용 로봇에 이어 두 번째다.

웨어러블 로봇은 작업자들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LG전자는 가정·상업용에서 산업용까지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며 로봇솔루션 분야를 선도할 계획이다.

TV 제품은 '8K 올레드 TV'와 '8K 슈



LG전자가 8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 전시회에서 LG전자 전시관 입구에 올레드 플렉서블 사이너지 260장을 이어 붙여 만든 초대형 '올레드 폭포' 조형물을 연출했다. /LG전자

퍼 울트라HD TV'를 동시에 공개하며 초고화질 TV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이는 8K 올레드 TV는 세계 최초이며 88인치 크기다.

두 제품은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알파 92세대'를 탑재해 최적의 화질과 음질을 구현한다. 8K TV에 탑재된 알파92세대 프로세서는 풀HD(1920×1080) 및 4K(3840×2160) 해상도 영상을 8K 수준의 선명한 화질로 업스케일링한다.

88인치 8K 올레드 TV는 3300만개에 달하는 화소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어 화면 크기에 관계없이 완벽한 블랙을 표현한다.

LG전자는 인공지능 TV에 지난해 구글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존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를 지원한다.

생활가전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유명 작가와 협업해 초프리미엄 생활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를 소개하는 프리미엄 전시 공간을 마

련했다. 또한 LG전자는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의류관리가전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냉장고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등 생활가전도 전시했다. 특히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미국에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스마트 빌트인 오븐' 신제품과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과정을 자동화한 혁신제품 'LG 홈브루'도 공개했다.

스마트폰 제품에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40 씽큐'를 비롯해 'LG G7 워', 'LG G7 핏', 'LG Q7' 등 보급형 제품들로 이어지는 풀 라인업을 소개했다.

미국에 출시하는 실속형 휴대폰 모델 'LG K9s'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메탈 디자인에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LG전자는 글로벌 완성차 고객을 초청해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선보이는 비공개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작년 8월 ZKW와 첫 공동 전시를 진행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구서윤기자